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위 ‘급제동’

도의회 운영위, 어제 거수표결 거쳐 심사보류
11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향방 결정될듯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 회기에서 결론내지 못하면서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1월 정례회에서 최종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에 앞서 2차 회의를 열고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공항 성산읍·구좌읍·우도면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제주도의회 공론화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정원의 건’을 일괄 상정해 거수투표를 거쳐 ‘심사보류’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사실상 부결) 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심사보류’ 의결로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의장직권 상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상임위 중심주의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해당 결의안의 운명은 11월 정례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본회의 후 김태석 의장과 결의안 심사보류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협의 결과 11월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11시까지 심

사기간을 정해 해당 결의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이유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해당 결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처리하기로 한 만큼 결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의안은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자치도의회 내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7명 이내)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 절차를 본격 진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위의 업무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등이다.



제주올레 걷기 축제 31일 서귀포시 대포동 약천사에서 제주올레 걷기 축제가 개막한 가운데 많은 도내·외 참가자들이 청명한 하늘과 푸른 바다를 벗삼아 올레 8코스를 걷고 있다.

제주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 ‘올인’

도-KOTRA, 11월 한달 유럽시장 공략 나서
화장품·스마트시티·신재생에너지 등 총출동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전략산업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불모지나 다름없는 유럽 공략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11월 한달 간 유럽지역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순회활동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에서 3회에 걸쳐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제주도 유망산업과 신성장 산업 중심의 투자 잠재성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다. 또 투자유치 활동에 참가하는 향토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투자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내 참가기업은 화장품 2개사(향토기업)와 스마트시티 2개사(민간기업) 등이다.

이번 유치활동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에서 제주화장품산업에 대해서, 19일부터 21일까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스마트시티 엑스포(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참가 및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으로 이뤄진다. 25일부터

26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전자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유치 활동으로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을 위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홍보를 통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기관 등을 방문,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투자유치 지역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제주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산업을 선정, 준비단계부터 미래전략과를 포함해 디지털융합과 저탄소정책과 및 제주에너지공사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업하며 행사를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조상윤기자

알림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톡톡 튀는 교육특강** 18년

한라일보는 도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내 청소년들의 인생 나침반이 될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열정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각 분야의 멘토를 초청하여 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맘마미야>, <갯조>, <드림걸즈> 등 수많은 뮤지컬 공연과 영화, 드라마, TV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를 초청하여 **‘홍지민과 함께 떠나는 꿈과 음악여행’**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특강에 도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주제	강사명
홍지민과 함께 떠나는 꿈과 음악여행	홍지민 (뮤지컬배우)	

일시 : 2019년 11월 16일(토) 오전 11시
장소 :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
대상 : 도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200명(선착순 모집)
신청 : 홈페이지 접수(http://edu.ihalla.com)
신청기간 : 10월 31일(목) ~ 11월 13일(수)까지
수강료 : 무료
주최 : 한라일보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의 : 한라일보 064)750-2523, 2540

제주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하세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종료가 임박하면서 제주도가 신청 독려에 나섰다.

제주도는 ‘2019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조속한 카드 발급 신청 및 사용을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급된 카드는 음식점, 영화관, 서점 등 38개 업종에서 13만원 범위 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 대상은 도내 여성농업인 1만1538명이지만, 10월 현재까지 1만375명 밖에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기존 신청자의 경우 관할 농협을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고, 신규신청자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협에서 받으면 된다. 송은범기자

제주자치도, 김성언 정무부지사 임명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민선7기 두 번째 정무부지사에 김성언(61·사진) 전 호남농업협동조합장을 임명했다.

신임 김 정무부지사는 지난 10월 7일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후 30일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11월 1일 원희룡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김성언 정무부지사 지명 당시 “유연함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3선 호남농협조합장과 (사)제주감귤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공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며 “현장의 도민들과 소통하며 살아있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배경을 설

명했다.

김 정무부지사는 서귀포시 효돈동 출신으로 효돈 초등학교, 효돈 중학교, 제주 제1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월라봉 영농조합 대표이사, 3선 호남농협조합장(2005년 11월~2019년 3월), (사)제주감귤연합회장을 역임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대한민국 **하늘길을** **빛내다!**

만남의 시대,
여행의 설렘이 시작되는 곳,
우리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무결점 스마트 공항을 만듭니다!

KAC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www.airport.co.kr